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26 호

2020 년 5 월 1 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내 (5/28)
2.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안내 (6/15~16)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영상 메시지 제출 안내

#### ■ 본부 소식

1. [Executive Update]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
2. [발간물] 코로나 19 비즈니스 가이드 (Business Guide COVID-19)

####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동물성 단백질 대체하기
2. [코로나19 대응 기업 우수사례] Unilever, HP, PHILIPS, Nestlé
3. [SDG 미디어 존] SDGs 목표 달성 및 사회 변화를 위한 브랜드의 역할
  - 엘리샤 해치(Alicia Hatch) Deloitte 글로벌마케팅최고책임자 외 2 인

## ■ UNGC 회원 뉴스

1. SH공사, 서울시 투자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1위
2. LG화학, 자금난 겪는 협력사에 1000억원 자금 지원
3. MYSC, 윤리적 투자조합 설립..에티칼 엑스트라마일 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

## ■ CSR 뉴스

1. 코로나 위기를 '녹색 전환' 기회로... 2050년 탄소 순배출 '0' 목표
2. 팬데믹 이후 경제: 지속가능성이 대세...준비된 기업에 기회
3. 글로벌 큰손들 "투자 받고 싶으면 '지구' 열 받게 하지마라"
4. 여성기업 왜 성장 못하나...일.가정양립, 네트워크 어려워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9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내 (5/28)

##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한국협회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자  
'202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올해 총회에서는 반기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님께서  
특별강연으로 함께 해주실 예정이며,  
<'코로나19' 우리 기업 대응 사례집> 발간 및 여성 임원 비율 향상을 위한  
<Target Gender Equality> 세레모니가 진행됩니다.

회원사 대표, 임원 및 담당 실무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                                  |
|--------|----------------------------------|
| · 일 시  |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11:00 - 13:30 |
| · 장 소  |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 (6F)            |
| · 참가대상 | 회원 대표 및 실무진                      |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거나,  
**대참자**를 필히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 2020 정기총회 일정

시 간	프로그램
10:30 - 11:00	등 록
11:00 - 11:30	본 회 의 I. 개회사 II. 2020 총회 의제 및 전기 회의록 채택 III. 이사 일부 변경 의결 IV. 2019 사업, 결산 보고 및 의결 V. 2020 사업 계획, 예산안, 중장기 계획 보고 및 의결
11:30 - 11:50	특별강연 -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11:50 - 12:00	단체 사진 촬영 - <Target Gender Equality> 세레모니 - <'코로나19' 우리 기업 우수 사례집> 발간
12:00 - 13:30	오찬



### 반기문

現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보아오포럼 이사장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명예원장, 석좌교수

前 제8대 유엔 사무총장

- \* 참석자 제공 자료:
- 코로나19 우리 기업 대응 사례집
  - 영국투명성기구 발간 'Incentivising Ethics' 국문 번역본
  - 'SDG Action Manager' 및 '지속가능한 해양 원형' 브로셔

\* 등 록: 아래 '참가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경우, 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히 위임장을 5월 22일(금)까지 한국협회 사무처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전 화 02 749 2149/50  
팩 스 02 749 2148  
문 의 gckorea@globalcompact.kr

참가신청

2020 정기총회 참가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 2.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 안내 (6/15~16)

2020년 6월 15일, UNGC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전 세계 수천명의 리더들이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에 참석합니다. 기업, 정부, 유엔 및 국제사회, 시민단체, 아카데미아 등이 참여하는 이번 온라인 리더스 서밋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함께 재건해나가야 할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모두가 초청된 이번 리더스 서밋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로부터 배우고 글로벌 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리더스 서밋 참가신청

리더스 서밋 행사 관련 문의 사항은 UNGC 한국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6월 15일			
08:00~09:00	<b>개회식</b> <b>환영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 연대</b> Lise Kingo, António Guterres, Tijjani Muhammad-Bande, Mark Carney		
09:00~09:15	<b>고위급 세션: 빠른 회복을 위한 SDG 포부(Ambition)</b> <b>UNGC 및 지속가능기업의 지난 20년간 성장</b> Remi Erikson		
09:15~10:00	<b>패널 토의: 함께일 때 더 강하다 - SDG 포부와 경제 회복</b> Femi Oke, Suphachai Chearavanont		
10:00~10:30	<b>팬데믹: SDG 포부 확산을 위한 기회</b> Julie Sweet, Lise Kingo		
10:30~11:30	<b>SDG 포부: Better &amp; Stronger Recovery</b> Peter Lacy, Roberto Marques		
11:30~12:00	<b>코로나 이후의 SDG 리더십</b> Lise Kingo, Clarke Murphy, Jim Hagemann Snabe		
12:00~12:30	<b>위기 속 리더십: Recover Better, Recover Stronger, Recover Together</b> Tedros Adhanom Ghebreyesus, Al Gore		
12:30~13:00	원격 네트워킹		
13:00~14:00	<b>심화 세션 1부</b>		
	SDG 포부	DNV-GL 'UNGC 20년 성과' 보고서	지속가능한 리더십 톨
14:00~15:00	<b>심화 세션 2부</b>		
	해양 행동	청년 SDG 혁신가	Target Gender Equality
15:00~16:00	원격 네트워킹		
16:00~18:00	<b>글로벌 타운 홀(Town Hall)</b>		
	UNGC 브라질 협회	UNGC 멕시코 협회	UNGC 남미지역 협회
18:00~20:00	UNGC 호주 협회 타운 홀		

18:00~21:00	원격 네트워킹		
20:00~22:00	UNGC 중국 협회 타운 홀		
22:00~23:00	지속가능한 리더십 툴		
23:00	글로벌 타운 홀 (23:00~01:00)		
	UNGC 태국 협회	UNGC 동남아시아 협회	UNGC 인도네시아 협회
23:00~23:59	원격 네트워킹		
6월 16일			
01:00~03:00	글로벌 타운 홀		
	UNGC 중동&북아프리카지역 협회	UNGC 인도 협회	
02:00~03:00	원격 네트워킹		
03:00~04:00	고위급 세션 (09:00~12:00 CET)		
	UNGC 10대 원칙과 코로나 이후의 회복 (09:00~10:00 CET) Guy Ryder		
04:00~05:00	기후 앰비션: 코로나 이후의 1.5 °C 목표 이행 (10:00~11:00 CET)		
05:00~06:00	SDG 포부: Better & Stronger Recovery (11:00~12:00 CET). Peter Lacy, Sunny Verghese, Alan Jope		
06:00~08:00	글로벌 타운 홀		
	UNGC 아프리카지역 협회	UNGC 유럽지역 협회	해양 행동
	청년 SDG 혁신가	UNGC-Russel Reynolds 리더십 툴	SDG 포부
06:00~08:00	원격 네트워킹		
08:00~08:10	폐회식		
	글로벌 변화를 위한 로컬 행동 Amina Mohammed		
08:10~09:00	이임식: '행동의 10년'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Lise Kingo		
09:00~10:00	폐회식 리셉션		

## 연사



António Guterres,  
UN 사무총장



Tijjani Muhammad-Bande,  
UN 총회 의장



Lise Kingo,  
UNGC 사무총장



Alan Jope,  
Unilever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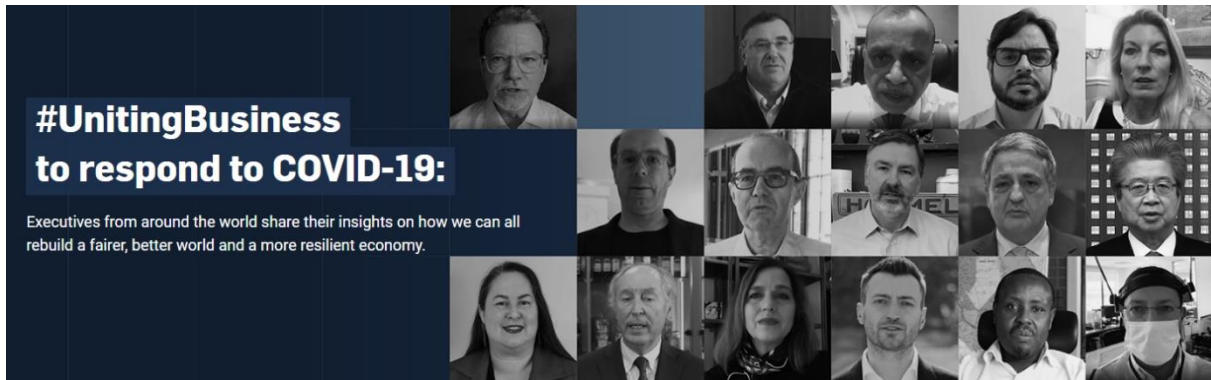


Julie Sweet,  
Accenture CEO



Jim Hagemann Snabe,  
A. P. Moller Maersk 회장,  
Siemens AG 이사회 의장,  
Allianz SE 이사회 부의장

### 3.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영상 메시지 제출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연대(#UnitingBusiness)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회원사 CEO 들이 자사의 코로나 19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영상 메시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해 회원사라면 누구나 68 개의 로컬 네트워크와 10,000 여개의 기업들에게 우리 기업의 아이디어, 조언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 웹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에 게재되며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또는 스페인어 중 한 가지 언어로 영상하여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영상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로, 기업당 최대 3개의 영상(주제당 1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대응(Response):** 코로나19는 귀사의 인력, 지역사회 및 기업 활동에 어떤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5월 4일 기준, 총 34개 기업 참여)
- 2) **회복(Recovery):** 귀사는 장기적인 비즈니스 연속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월 4일 기준, 총 16개 기업 참여)
- 3) **복원(Resilience):** 복원력(Resilience)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5월 4일 기준, 총 16개 기업 참여)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UNGC 한국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CEO 영상 메시지 예시



##### 제니퍼 스캔론(Jennifer Scanlon) 유엘(UL) CEO

- 직장 내 PPE(개인용 보호구) 및 위생 프로세스를 강화해 직원 보호
- 호흡기 및 중환자실용 의료기기 공급 개선
- 소독장비 및 건강관리시설 등에 사용되는 UBC 살균장치 인증
- [영상 바로가기](#)





### 패트릭 푸안(Patrick Pouyanné) 토탈(Total) CEO

-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자사의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
- 40 개 언어로 24 시간 운영되는 코로나 19 핫라인 개설
- 대다수의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마스크 제공
- [영상 바로가기](#)



### 장 파스칼 트리쿠아(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CEO

- 보건 관련 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을 전개 중인 모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당국과 긴밀히 협력
- 데이터, 교통 네트워크, 스마트 시티, 데이터 전송 등 필수적인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영상 바로가기](#)



### 마나베 스나오(Sunao Manabe)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 CEO

- 제약회사로서 약품의 안정적 공급 확립
- 코로나 19 발생 이후 긴급 대응 팀을 구성해 확산 방지에 대처
-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 시하는 업무 방식 추구
- 코로나 19 를 위한 백신 및 약품 연구개발
- [영상 바로가기](#)

CEO 영상 메시지 제출하기

CEO 영상 메시지 보기

## 본부 소식

### 1. [Executive Update]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

아래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의 4월 10일자 GreenBiz 기고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존에 대한 성찰과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결국 하나의 큰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코로나 19가 미래의 글로벌 위기들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훈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위기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인류가 서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대하지 않는다면,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부터 시작해 결국 모두가 코로나 19 앞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코로나 19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었 듯, 당장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기후변화나 성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 또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는 “삶은 뒤돌아 볼 때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삶은 반드시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 19가 바꿔놓은 세상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한 빠른 이해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 코로나 상황에 관련한 제 인사이트를 아래 기재해두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또한 자유로이 자신의 생각을 고민하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부터 세계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나아가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이 조금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울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낙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코로나 19의 대유행은 우리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제대로 인지해오지는 못했지만, 인류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간에 상호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복지는 타인의 건강 및 복지와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연결은 지역과 국경을 넘어 적용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의 건강이 곧 기업 생태계, 경제, 나아가 국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은 사람과 사람 간 연대와 상호의존으로 이어졌고, 이 안에서 우리는 인류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존재임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인력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추세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사회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 우편과 식량을 배송하는 배달원과 같은 노동자들은 봉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의 위험을 무릅쓴 채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기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은 이웃끼리 살피고, 기업은 직원과 공급자 및 공급업체를 챙기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들은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의료 및 방호 장비를 사회에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생산 라인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각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제적 지원책을 내놓거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지방 및 중앙정부 관료들과 협력하여 정부 방침을 지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의 지원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지역들을 돕기 위한 활로를 찾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이번 코로나 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발생한 여러 인도주의적 요구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적인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대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문제해결에 뛰어들어서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과 달리, 우려할 만한 부분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웃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와중에도, 도움의 손길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은 항상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2,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는 3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약 27억 명의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수백만 명을 실업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업 위기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경험하고 있는 다수의 여성들에게 가장 큰 여파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은 코로나 19의 경제적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잊혀졌습니다. 심지어 세계 각국에서 자택 격리가 활성화되면서, 여성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더더욱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감염 대응의 최전선에서 집에 머무는 가족들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등, 비공식적 간병인의 역할을 맡아 추가적인 가사 노동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쇄 조치 속에서 집에 갇힌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과 지원제도의 중단 속에서 종종 가정 폭력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19 이전, 성평등은 우리에게 그저 먼 목표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위와 같은 세계 곳곳의 가난한 여성들의 역경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코로나 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원을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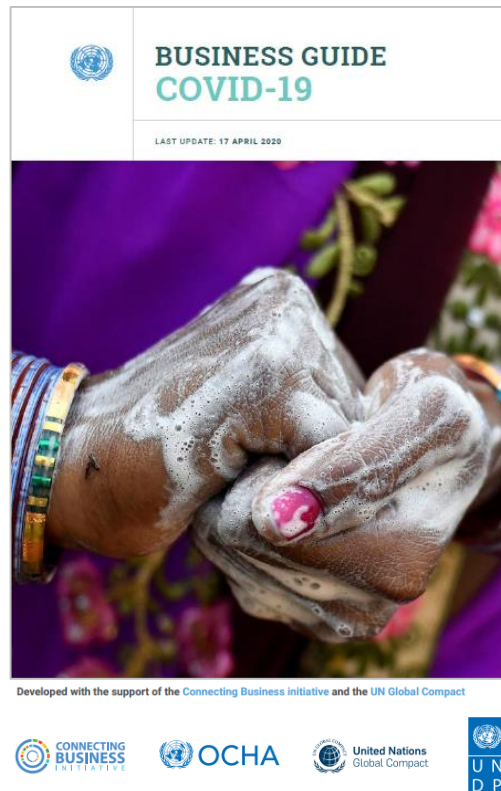
유엔 창설 75주년을 맞는 올해, 코로나 19 대유행 사태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공유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더 나은 모습의 새 세상을 재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유엔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미래 세대를 전쟁의 광기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다자 협력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인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지금 상황에서 다시금 기억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들이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 대 원칙을 기업활동에 반영하도록 이끌고 그들이 연대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 19 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돕는 #UnitingBusiness [특별 성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사 CEO 들의 [영상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글로벌 기업 공동체가 코로나 19 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 56 니다. 2030 의제와 17 대 글로벌 목표에 맞추어, 그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 나갑시다.

원문 보기

## 2. [발간물] 코로나 19 비즈니스 가이드 (Business Guide COVID-19)



세계는 지금 개인, 집단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19 는 모든 보건 위기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확산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는 영세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사회경제적인 영향도 수반합니다.

UN 에서는 모든 기업과 기관에 대해 근본적인 세 가지 행동을 요구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 및 사회적 거리를 보장하며 재택 근무자에 대한 임금확보를 포함하여 건강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안전망 제공
2. 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 기여를 통해 정부에 재정 및 기술 지원 제공
3. 위기 상황에서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과 사업계획의 용도 변경 및 보완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커넥팅비즈니스 이니셔티브가 함께 마련한 <코로나 19 비즈니스 가이드>는 민간 부문이 코로나 19 방지를 위한 공동 행동을 통해 UN 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공합니다.

### 기업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기업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보건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사항에 따라 코로나 19 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복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염과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책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출장, 재택 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증상 보고, 비접촉 업무 등). 또한 기업은 자사와 공급업체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래 세 가지 방식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재정 지원
2. 우선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현물 기부
3. 공동 옹호(Advocacy)

### 1. 재정지원

모두가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WHO는 국제적 노력의 협력을 이끌고 촉진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바이러스 예방, 발견 및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재정지원은 WHO가 바이러스의 추적 및 확산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확진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들을 지원하며, 일선에서 일하는 근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필수품을 제공하고, 백신, 검사, 치료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 2. 현물 기부

현물 기부를 통해 현 상황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WHO의 [코로나 19 물품 패키지\(COVID-19 Disease Commodity Package; DCP\)](#)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DCP는 코로나 19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나열한 데이터 시트입니다. DCP는 검사, 예방 및 제어, 환자 관리의 세가지 요소로 나뉘어 있으며, 코로나 19 물품 패키지는 검체 채취 및 진단, 보조 치료, 보건 시설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물품들을 포함합니다.



### 3. 공동 옹호(Advocacy)

비즈니스 리더들은 그들의 입지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옹호 활동을 펼치고, 유엔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 아래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옹호 활동에 들어갈 주요 메시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기업들은 단독으로 행동할 때보다, 공동 행동에 참여하고 및 타 기업들에게 동참할 것을 독려할 때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 그 예시로, 비즈니스 리더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 정부가 개방된 무역을 유지할 것을 장려하고 필수 물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등 인도주의 활동에 필요한 인력의 육로, 수로, 항공기를 통한 이동을 보장할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기업들은 UN Connecting Business Initiative(UNCBI), UNGC, 그리고 지역 상공회의소 등 국가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 행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참고사항

- WHO 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여 개인보호장비(PPE)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민간부문과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PPE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WHO 는 물품 조달율이 낮은 국가와 지역에 대해, PPE 의 비축량을 줄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가 및 기업이 WHO 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모든 지원 활동은 인간성,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의 원칙에 의거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원주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고 여성 리더십을 지원함으로써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인도주의적 대응에 대한 기업 참여의 핵심입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행동의 중심에 지역사회를 두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는 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노력에 있어 지역 기관, 사회 네트워크 및 시민 사회는 협력해야 합니다.
- 유엔의 대응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유엔과 기업 간 협력(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Business Sector)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발간물 바로가기](#)



# SDGs 소식

## 1. [SDGs 솔루션] 동물성 단백질 대체하기



*비욘드미트(Beyond Meat)는 햄버거나 닭고기 대용 고기(Chicken-Free Strips)와 같은 식품의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합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섭니다.*

비욘드미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하여 맛, 냄새와 형태까지 고기와 같은 식품을 만듭니다. 닭고기 대용 고기(Chicken-Free Strips)의 개발로 첫 걸음을 뗀 비욘드미트는 햄버거와 비프 크럼블 등의 제품을 출시하며 여러 레시피에서 육류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대용 고기는 실제 닭고기의 질감을 모방한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또한 '비욘드 버거'는 비트가 섞인 완두콩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의 육즙을 재현한 비건 채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글루텐, GMO,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 호르몬, 방부제를 포함하지 않는 비욘드미트의 제품에는 육류에는 없는 천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왜 비욘드미트의 기술에 주목해야 할까요?

미국인들은 매일 0.5 파운드 이상의 단백질을 소비함으로써, 단백질 권장량(일주일에 0.5 파운드)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GDP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1 인당 단백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기후변화, 자원 부족 및 동물 복지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비욘드미트의 제조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비욘드미트는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 건강과 복지

비온드미트의 제품은 일반고기보다 단백질 함량은 높으면서도 유전자 변형제품 (GMO)을 사용하지 않으며, 콜레스테롤, 호르몬과 방부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깨끗한 물과 위생

한 연구에 따르면, 1/4 파운드의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200 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훨씬 적습니다.



### 기후행동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식물성 식품으로 식단을 바꿈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육상 생태계 보호

식물 단백질을 사용하면 가축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방목공간과 농경지가 모두 필요한 기존 쇠고기 버거에 비해 버거 생산용 토지가 무려 99%나 줄어듭니다.

[자세히 보기](#)

## 2. [코로나 19 대응 기업 우수사례] Unilever, HP, PHILIPS, Nestlé

코로나 19의 빠른 확산이 전 세계인의 삶과 지역사회 그리고 비즈니스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포럼(WEF)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장과 공급망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업 사례를 모았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세계적인 이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수 주간 코로나 대응 기업 사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협회는 팬데믹에 맞서 기민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한 우리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취합, 발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혜로 이겨낸 사례를 담은 본 사례집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기업들의 노력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코로나 19 대응 사례 공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처(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5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1. Unilever



- 국가: 영국
- UNGC 가입: 2000년 7월 26일
- 산업군: 식품제조업, 유지업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유니레버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 속에서 세계적인 비누 사용량 및 수요의 증가에 맞춰 비누 생산량을 늘리고, 이로써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3월 24일 유니레버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책 중 하나는, 약 100 유로 가치의 비누, 소독제, 표백제 및 식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백신 개발 전까지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비누 사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유니레버는 미국, 인도, 중국,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및 여러 국가에서 전담 팀을 꾸려, 수백만 개의 비누를 생산하고 이를 취약 계층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시설이 거의 없거나 열악한 지역에는 2천만 개 이상의 비누 및 기타 위생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니레버는 영국정부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와 협력하여 코로나 19 손 씻기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10 억 명의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손 씻기 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의 국가 내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에서 전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니레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니레버의 적극적인 대응은, 타 기업들 또한 현 상황 속에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Covid-19 handwashing campaign to target a billion people worldwide](#)






## 2. HP



- 국가: 미국
- UNGC 가입: 2002년 8월 29일
- 산업군: 컴퓨터 제품 제조, 판매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HP 는 사내 3D 프린팅 부서 등과 협업하여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물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실드, 마스크, 지속적 기도양압용 압박기, 산소 호흡기 부품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HP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물품들의 디자인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들은 필요한 물품에 대한 디자인을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COVID-19 applications and designs

 Face Shields	4 designs +
 Masks	3 designs +
 CPAP Components	2 designs +
 Personal Accessories	4 designs +
 Ventilator Components	1 design +






이외에도 HP 는 최근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기술 지원 및 금전적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고, CEO 겸 회장 엔리케 로레스(Enrique Lores)는 전 세계 기업들 및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이를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에 함께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HP 는 코로나 국면에 맞추어 자사 직원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3D printing in support of COVID-19 containment efforts](#)

### 3. PHILIPS

# PHILIPS

- 국가: 네덜란드
- UNGC 가입: 2007년 3월 6일
- 산업군: 전자제품 제조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p>Ventilators and Respiratory Solutions</p> <a href="#">Learn more</a>	 <p>Patient Monitors &amp; Defibrillators</p> <a href="#">Learn more</a>	 <p>Imaging</p> <a href="#">Learn more</a>
 <p>Healthcare Services</p> <a href="#">Learn more</a>	 <p>Bedside and virtual critical care</p> <a href="#">Learn more</a>	 <p>Remote screening and monitoring</p> <a href="#">Learn more</a>

건강기술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필립스는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 사용되는 중환자 치료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의 치료 및 회복 과정에는 바이탈 사인 모니터(VSM)나 휴대용 인공 호흡기, 그리고 다양한 상태의 호흡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 소모품 등 수많은 의료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hilips의 영상 진단 시스템과 원격 의료 솔루션은 중환자실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가격리 중인 환자가 멀리서도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필립스는 에라스무스 메디컬 센터, 네덜란드 보건복지가족부(VWS) 등과 협력하여 네덜란드 내 병원들이 코로나 19 환자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이 증가하는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병원 간에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의료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환자실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간 감염 환자의 원활한 이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월 28일 출시된 이후 네덜란드 병원의 95%가 이미 온라인 포털에서 코로나 19 환자 데이터를 공유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 4. Nestlé



- 국가: 스위스
- UNGC 가입: 2001년 2월 20일
- 산업군: 식품업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바로가기](#)

네슬레는 코로나 19 대응에 있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와 파트너십을 맺고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통해 보건 시스템 강화에 힘을 보태고, 간병인들과 응급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긴급 지원을 하는 등 인도적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1)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 의료영양제품, 생수 기부
- 2) IFRC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가 내 자사 물류 체인 활용
- 3) 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에 1,000만 프랑 즉시 기부
- 4) 자사 직원들의 국제적십자사연맹에 대한 모든 기부금을 1:1로 매칭 기부



또한 네슬레는 제품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업무 강도가 높아진 직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기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슬레 공장, 품질 연구소, 물류 센터의 최전방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모든 현장에서 강화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직원들이 코로나 19 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무료 식사 및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을 위해 대출 및 진료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업무 정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도 최소 12 주 동안 임금을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 알아보기: [How Philips is globally addressing the coronavirus \(COVID-19\)](#)



### 3. [SDG 미디어 존] SDGs 목표 달성 및 사회 변화를 위한 브랜드의 역할

- 엘리샤 해치(Alicia Hatch) Deloitte 글로벌마케팅최고책임자 외 2 인



<우측부터 SAP 최고마케팅책임자 엘리샤 킬먼(Alicia Tilman), Deloitte 글로벌마케팅최고책임자 엘리샤 해치(Alicia Hatch), 그리고 Firmenish 최고지속가능책임자 마가리노스 루차(Bérangère Margarinos-Rucha)>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 즉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각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마가리노스 루차(Bérangère Magarinos-Rucha) Firmenish 최고지속가능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엘리샤 해치(Alicia Hatch) Deloitte 글로벌최고마케팅책임자(Global Chief Marketing Officer) 및 엘리샤 킬먼(Alicia Tilman) SAP 최고마케팅책임자(Chief Marketer)가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세 사람은 **SDGs가 정부 및 기업의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방식과 이것이 기업 내부적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DGs가 정부 및 기업의 행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루차는 “SDGs와 관련해 Firmenich의 모든 활동은 친환경에 바탕을 둔다. 환경과 관련된 여러 정책을 또한 시행 중에 있다. 우리는 친환경에 대한 인식 강화를 위해 가치 사슬을 포함한 고객의 변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는 우리 브랜드가 주는 강한 신뢰감과 그에 이은 영향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Deloitte의 엘리샤 해치는 “Deloitte는 교육 문제에 있어 모두에게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전 직원들은 이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또한 산업을 재편성해 모든 이해관계자들 및 타 기업과의 협력을 포함해 파트너십과 이니셔티브 참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SAP의 엘리샤 킬먼은 “SAP는 창립 초기부터 기술을 통한 인류의 번영과 개인 삶의 변화를 모토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SDGs라는 명확한 가시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브랜드는 어떤 방식으로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SAP의 엘리샤 킬먼은 “일례로 우리는 성 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평등한 인재 채용을 위해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무의식적 편견(unconscious bias)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특정 성별을 배제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AI를 통해 채용공고 등에서 이런 문제점을 포함하는 단어들을 걸러낸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들이 거리낌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또한 직책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즉 기술력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른 협력사나 이해관계자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Deloitte의 엘리샤 해치는 “기업의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는 매우 강하다. 브랜드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인식 전환 및 사회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가진 역량이 더해진다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에 SAP의 엘리샤 킬먼은 “최근 식품 산업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육류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SAP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소비자로 하여금 동물 단백질이 아닌 그린 단백질(Green protein)을 소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육류 소비의 감소를 통해 현재 사용중인 경작지의 약 98%를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UNGC에 참여하는 기업 CEO 중 71%는 UNGC와 참여 기업이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 25%만이 본인의 기업활동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시행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브랜드의 가치와 그것이 주는 신뢰감을 통해 식품, 환경, 성 평등 등 SDGs에서 선정한 분야에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재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크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 UNGC 회원뉴스

## 1. SH공사, 서울시 투자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1위



-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사)는 2020 년 투자 및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에서 1 위를 차지함
- 본 평가는 공개 업무의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 운영,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3 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 SH 공사는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 개설을 통해 정보공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함
-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함
- 김세용 사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마스킹 자동화 등의 도입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하고 기관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함

조선비즈

## 2. LG 화학, 자금난 겪는 협력사에 1000 억원 자금 지원



- LG 화학이 630 억 원 규모로 조성한 상생펀드와 협력사의 핵심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하는 혁신성장펀드 등 총 1000 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결정
- 코로나 사태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들에게 심사 간소화 등 상반기 중 빠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
- LG 화학은 LG 전자와 함께 친환경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LG 소셜캠퍼스'에 선정돼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에 2 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2000 여명에게 원격수업에 필요한 헤드셋 등 총 3 억원의 필요물품을 제공하며 사회적기업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
- 또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1 억원을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과 의료진을 위해 기부했으며, 국내 12 개 사업장을 돌며 릴레이 헌혈 캠페인도 진행 중
- 신학철 LG 화학 부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변 곳곳을 살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힘을 보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힘

조선비즈

### 3. MYSC, 윤리적 투자조합 설립..에티컬 엑스트라마일 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



- 엠와이소셜컴퍼니(이하 MYSC)가 국내 최초의 윤리적 투자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법인 설립 3년 이내 윤리적 투자에 부합하는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임.
- 지난 4월 23일, MYSC는 성'에티컬 엑스트라마일 1호 개인투자조합' 결성 총회를 진행함.
- 본 투자조합이 추구하는 윤리적 투자는 공급사슬에 있어서 아동노동 금지, 오염/피해 물질 미사용, 갑질 예방 등의 의사결정 프랙티스 기준에 부합하거나 해당 방향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신생기업에 집중할 것임.
- '윤리적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시한 손봉호 교수는 "윤리적 접근과 비즈니스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임팩트투자를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도 윤리적이야 투자도 받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말함.

데일리경제

# CSR 뉴스

## 1. 글로벌 큰손들 "투자 받고 싶으면 '지구' 열 받게 하지마라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투자가 최근 각광받고 있음.
- 세계적으로 ESG 친화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은 약 30 조 달러를 넘어 섰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포함한, 일본의 공적연금펀드, JP 모건 등의 기업에서도 참여를 선언하며 세계적인 이목이 주목되고 있음.
- 여전히 ESG 에 대한 평가 기준은 확립되지 않고 있으나, 지진, 홍수와 같은 환경 문제가 기업의 이윤 창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때문 환경에 대한 평가 방법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음.
- 현재 TCFD 는 지구 평균온도는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줄이기 위한 기업의 행동 방안을 담고 있음.
-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ESG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국내 6 개 기관만 현재 참여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두 기관은 환경 연구업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관심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비춰짐.
- 국민연금의 참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TCF 를 포함한 ESG 가 전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 흐름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2. 코로나 위기를 '녹색 전환' 기회로...2050 년 탄소 순배출 '0' 목표



- 뿌연 먼지 대신 하늘이 본래 색을 되찾고 사람과 쓰레기가 줄어 거북이들이 마음껏 알을 낳으려 해변을 찾는 등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 세계의 경제·사회 활동이 멈추자 변화들이 포착됨
- ‘오염물질이 줄면 자연이 회복된다’는 진리를 실제로 체험하고 깨닫는 경험하고 있는 셈
- 그러나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한동안 멈췄던 공장을 다시 돌리면 화석연료 사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경험이 자칫하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따라서 “새롭게 맞이할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를 맞은 시대인 만큼 향후 경기 부양책은 탄소 배출 제로를 추구하는 ‘녹색 전환’에 맞춰져야 함

동아일보

### 3. 팬데믹 이후 경제: 지속가능성이 대세...준비된 기업에 기회



- 코로나 19 로 전 세계적인 산업 활동이 멈추면서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사태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경제를 위해 인간의 건강과 자연경관을 희생시켜온 데 따른 치명적인 결과라고 보도함.
- 유럽정책센터(EPC)의 에니카 에드버그 위원장은 "지금의 위기는 기후 관련 행동을 진화시키는 동시에, 경제가 보다 지속가능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한다"고 밝힘.
- 국내외 경제계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장이 주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환경을 고려한 기업의 경영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역설적으로 온실가스가 줄고 맑은 하늘과 생태계가 되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기업들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뉴 노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아주경제



#### 4. 여성기업 왜 성장 못하나...일·가정양립, 네트워크 어려워



- 17 일, 2019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남성기업인 대비 여성기업인이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분야로는 ‘일·가정 양립 부담’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집안일과 육아는 여전히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
- 통계청의 2014 년 생활시간 조사 자료를 분석했을 때 맞벌이 부부의 주중 가사시간은 남편은 17.4 분, 아내는 129.5 분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7.4 배 길었음.
- 또한 남성 기업인에 비해 네트워크 형성이 취약한 점이 기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남.
-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인들에게 네트워크는 필수적인 부분인데, 여성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해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 확보 측면에서 다소 밀린다"고 지적함.

아주경제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회원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2곳입니다.

- 충남연구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1. COP/COE 제출회원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3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효성첨단소재(주)
- 푸른나무재단
- 테크로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19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KEB 하나은행, LG 화학, 두산중공업, GS 칼텍스, 한국타이어,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LS 산전, 휴맥스, 한국동서발전, 한전 KPS,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공항공사, 롯데홈쇼핑,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인천시설공단, 한국가스공사, 한화솔루션, CJ 대한통운, SK 하이닉스, KDB 산업은행, 포스코,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거래소, 한전 KDN, 한전산업개발, NS 쇼핑, 성남도시개발공사

####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유니베라,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엠와이소셜컴퍼니, 이알엠코리아(주),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환경재단,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인협회,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재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근로복지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산경제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